

“왜 꺾어진 얘기만 쓰냐고요? ... 삶이 그렇잖아요”

컬쳐 & 피플

소설가 공선옥



이름만으로도 빛나며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가 있다. 소설가 공선옥(51). 그녀는 ‘요령’을 모르는 글쟁이다. 수사나 기법보다는 진정성에 무게를 둔다. 어쩌면 요령은 줄 위의 광대가 내딛는 헛발처럼 위험한 모험인지 모른다.

그녀는 지금껏 ‘오지리아’에 두고 온 서른 살, ‘피어라 수선화’, ‘명랑한 밥길’, ‘꽃 같은 시절’,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등 적잖은 작품을 펴냈다. 단 한번도 밥벌이를 핑계로 ‘외도’를 하거나 소설쓰기를 저버린 적은 없다.

그녀는 64년 전남 곡성의 빈농의 집에서 태어나 ‘전근대적’인 삶을 살 만큼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았다. 전남대 국문과 2학년을 중퇴하고 생계 취업자로 공장을 떠돌기도 했으며 적잖은 곡절의 삶을 살아왔다.

그녀 소설의 큰 줄기는 ‘여성’과 ‘광주’다.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을 이끄는 여성은 대부분 밑바닥 인생을 산다. 또 다른 서사적 축인 ‘광주’는 잘못된 역사의 희생 공간으로 환기된다. 그럼에도 ‘여성’과 ‘광주’는 소외된 이웃과 타자화된 약자에 대한 포용의 의미로 확장됨으로써 상처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가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도 광주의 오월과 여성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들여다본 소설이다. 또한 작품을 통해 일련의 오월 광주 폼페 문제 등을 비유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광주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써요. 어쩌다 광주 이야기가 나오면 트략해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광주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아파합니다... 2011년에, 독일의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 관련 취재자 1년간 독일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나치의 폭압과 당시의 시대적 아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풀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쩌면 영문인지 자꾸 덮어버리고만 해요.”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쓰게 된 배경이다. 주인공 정애의 모친 삶은 오월광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다. 작

가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으로 한 여성이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

“공동체의 상처는 반드시 기억하고 형상화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볼 수 있고 내일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갈수록 허위로 가득한 사소설이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해되고 공감의 간다. 작가는 자신이 받

곡성 빈농의 집서 태어나 전남대 국문과 중퇴 ‘곡절의 삶’ 소설의 줄기는 여성과 광주

“공동체 상처 꼭 기억하고 형상화해야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고 내일을 예견할 수 있죠”

을 딛고 선 땅의 가장 절박한 이야기를 쓰는 존재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수긍이 되는 얘기다.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 따른다. 공작가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진실성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설 기법 측면에서 다소 진부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내가 많이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마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꺾어진 이야기를 쓰도록 강제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가는 자기 삶이 살아온 만큼 소설을 쓰게 된다는 말이, 굴절된 삶과 그 가운데서 움트는 생명력은 문예기법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 그녀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은 꺾어진성이다. 화려한 말의 성취나 새로운 기법의 시도는 없다. 인물들의 신산한 삶과 그 삶을 직조해내는 작가의 ‘고투’만이 있을 뿐이다. 생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가는 뒷심과 바닥을 보고야 말겠다는 드센 의지가 엿보인다.

작가 이기호가 공선옥의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기호는 공선옥의 소설 ‘꽃같은 시절’의 추천기를 이렇게 썼다. “독자로 하여금 작가와 작중 인물을 혼동하는 가장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소설이 있다면, 아마도 이 땅에선 그녀의 작품이 첫 번째로 꼽힐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이 만든 인물의 삶을 직접 살아버리고 마는 탓이리라...”

공작가에게 소설은 방식이나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 정지한 소재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거창한 담론을 구현하는 매개도 아니다. 그녀에게 소설은 시난고난한 삶의 문제를 온전히 드러내는 매개일 뿐이다.

그녀는 “이야기가 저절로 제 몸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말한다. 딱히 소설을 쓰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창작 테크닉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흘러 들어온 이야기 자체가 몸에 축적되어 되면, 저는 그냥 그 이야기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공작가의 소설가로서의 입문도 우연찮은 계기에 찾아왔다. 그녀의 창비 등단작인 ‘씨앗밭’(1991)은 서울 구로공단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썼다.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 변혁을 위해 공단에 위장취업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공단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어. 뭔가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이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오면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올랐지요. 그때마다 한 줄, 두 줄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등단작이었던 ‘씨앗밭’은 꺼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큰불을 향해 그 기세를 높여 가는 중이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과 삶의 문제에 천착하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단다. 그녀의 ‘씨앗밭’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김민수기자 jeans@kwangju.co.kr

‘톡! 톡! 댄싱톡’

무용을 통해 소통과 공감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광주교육대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

무용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배우는 ‘톡! 톡! 댄싱톡’ 교육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 광주교육대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진행되는 ‘톡! 톡! 댄싱톡’은 또래 친구들과의 원만한 교우 관계를 배우고 다른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광주교육대 문화예술교육원이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4월부터 지역 초등학생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20여명을 대상으로 타인과의 교류 방법, 다른 나라 문화 체험, 한국 춤 여행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일 7차 교육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배우는 ‘우리가족 댄싱톡’이 체험형으로 진행된다.

9월중 2차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12월말에는 학생들이 여러나라의 민속무용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보람기자 boram@

‘놀고먹는 레지던시’

창작공간 ‘미테-우그로’
국내의 작가 10명 선정
9월 각국에서 3개월 활동

광주 대인시장에 있는 창작공간 미테-우그로가 ‘2014 놀고먹는 레지던시 part.3’ 국제 레지던시에 참여할 국내외 작가 10명 선정했다.

국내작가로는 변민석, 신형만, 이인성, 정호정 등 4명이 선정됐고, 국외작가는 씨리나 궁글로이(Sirinath Gunkloy·태국) 등 6명이 선정됐다.

국내 작가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쉼라과전 대학(태국 방콕), 뉴 제로 아트스페이스(미얀마 양곤), 타나인 디(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코가네초 바잘(일본 요코하마) 등 아시아 각 지역 창작공간에서 최대 3개월간 체류하며 페인팅,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동아시아 국제도시로 지정돼 광주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인

요코하마 코가네초 바잘에 입주하게 될 이인성씨는 항공료와 체류비 등 최대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요코하마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국외 작가 중 태국 씨리나 궁글로이는 지난 5월 1일부터 미테-우그로에서 체류하면서 태국 큐레이터 1명과 함께 창작공간 리서치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2014 놀고먹는 레지던시에서는 예비기획자와 신진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국제 교류전, 지역교류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Haru.k, 임남진, 이조흠, 이인성, 전준모, 신호훈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개인전과 그룹전이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각 지역에서 열린다.

한편 놀고먹는 레지던시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광주문화재단, 광주시, (주)영무건설이 후원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인성 작가가 창작활동을 하게 될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초 바잘.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전대상대2분
(미래로 아파트 용봉지구 코너)
신축 4층 톨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1억 5000만)
수익률 12% 11억5천

②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127개)★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6억7천(보3천, 용 1억2천)

③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용1억2) 수익률 13%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원룸형, 투룸형은전2분)★
원룸시설완비, 울리모달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 원룸형(10평) 3천3백(보증금 200, 월27, 용1000)
• 원룸형(11평) 매가 3천4백(보 200, 월 27, 용1000)
★2채매입사★총매가6천5백만(용2000만) 실투자 4500만
(월수익 54만원) 수익률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수완지구3층(85평)
매가3억5천
모아엘가 APT입구
5000세대
최고위층 노후보장
(학원, 사무실, 투자적합)
(보3천 월190만 용2억5천)
수익률 13%연 2400만원
전용을 높음

침단지구
상가매매2층

침단지구2층(62평)
매가1억7천
오션스과 임대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됨
(주인직접 사용자)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쌍촌역 인근고시원 대지 272㎡(87)건물 493㎡(149) 수익률 보증금 3천에 월 580선 연금생활에 적합 5억 2천
-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3천 월500선 수익 5억2천
- 700만원에 이전해갈 생활주택부지 영암읍 도로점 1380㎡(417) 대출 1억2천 원룸 적합 7000만원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땅 공장,창고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시내 목욕탕과 여관등 대지 765㎡(231)건물 2529㎡(765) 감정 22억 대출없음 매도 13억
- 쌍촌역 4거리 내대지 377㎡(111)7억천
- 무인택시합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천 매도 은행 인수하고 9천만원
- 영암읍 APT와 생활주택 112세대 허가난방 4615㎡(1396) 은행 3억4천 매도,교환 6억3천
- 쌍촌동 5.18공원 건너편 원룸촌 대지 198㎡ 건물 453㎡(137) 1층 가게와 안길, 원룸 15개 5억천
- 원룸, 생활주택부지 쌍촌동 1층 주차지 2236㎡(676) 대출 8억6천 매도 13억

임대·투자·교환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 운전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300선수익 매도3억천
- 신안동 상업지 333㎡원룸 등 적합 3억 2천
- 남구 사동 사적공원 10월 준공예정인 생활주택 85㎡ 은행 1억5천선 생활여건 좋음 2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판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망프랜차이즈 입점)
- ▶ 북구 신동동 유치원 건물 매매 23억
-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매 27억(보4.1억 월1,240만)
- ▶ 서구 쌍촌동 5층건물 매매 15억 (보1.7억 월700만)
-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 광산구 수원지구 상가건물 매매 110억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주차거리 대지 760㎡ 매매 16억
-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직적)
-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1,920㎡ 매매 12억(최고적합)
- ▶ 북구 용진동 생산녹지 1,920㎡ 매매 29억(4거리코너)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2,000㎡ 매매 6억5천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매39억
- ▶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1,400㎡ 매매 20억
- ▶ 담양군 원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 세하동 청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벽진동 청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 정남진 장소,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철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